



추석맞이 기관 무상점검서비스 실시



▲ 기관 무상점검 현장, 원도지부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2주간에 걸쳐 전국 17개 지부별로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추석맞이 기관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기관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지난 설맞이(1월) 및 어한기(5~6월) 기관 무상점검서비스에 이어 올 들어 3번째로 실시된 것으로써 서비스 대상은 어선을 포함한 소형 유·도선들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서비스 내용은 기관 및 전기설비 등 관련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점검결과 교체가 필요한 일부 소모품성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이 무상지원을 해주고 부품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선주에게 교환 필요성 등을 권고해 정비토록 하였다.

무상점검서비스 신청은 공단 관할 지부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이번 무료 서비스가 고객서비스 향상 및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풍 '나리' 피해 선박 “특별무상점검서비스” 실시

지난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의 강습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어선들에 대하여 “특별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무상점검서비스는 출어기를 앞두고 급변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하여 기관실 침수 등 기관손상을 입은 어선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서비스반'을 편성하여 10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서비스 내용은 기관 피해부분에 대한 무료점검과 함께 연료필터와 오일 등 소모품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교환·보충해 주고, 선체 등 기타부분에 대한 피해복구요령 등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특별점검서비스반 실시를 계기로 향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어선들에 대한 서비스를 정례화 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핵심 인재와 경영층과의 스킨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워크숍 개최, 가천인력개발원

지난 9월 13일, 14일 양일간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층과 입사 5년미만 직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소재 가천인력개발원에서 “미래핵심 인재와 경영층과의 스킨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입사한 미래의 핵심적인 인재 그룹과 경영층간의 스킨십 향상을 통하여 공단의 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공단의 미션·비전 및 가치체계를 공유함으로써 대고객관계 및 리더십 등에 관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미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과 함께 “공단의 10년 뒤 모습” 등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 및 발표와 “공단의 혁신활동 및 장애요인” 등을 주제로 한 단막극을 분임별로 실시하였다.

한편, 김성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경영층과의 스킨십을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직원상호간에 팀웍과 결속을 다져 미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신입직원들은 분임발표 및 단막극을 통해 받은 시상금을 공단 불우이웃돕기 모인인 ‘사랑나눔회’에 전액 기부함으로써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단직원으로서의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결손가정 후원

지난 9월 18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김성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10명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경성목양관과 결손가정을 방문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공단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공단의 사회봉사모임인 ‘사랑나눔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작한 결손가정 돕기운동인 ‘1본부 1가정’ 돕기운동을 지난 5월 지원본부에 이어 전략경영실이 추가로 참여하여 전임직원이 모금한 성금과 위문품을 각각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 성금과 위문품 전달, 경성목양관

「설계도서심사 관련 고객간담회」 개최



▲ 설계도서심사 관련 고객간담회 개최, 부산지부

지난 8월 29일, 30일 양일간 부산, 여수지부회의실에서 전국 선박설계회사 20개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도서심사 관련 고객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심사업무와 관련된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설계도서 심사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 설명, 복원성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고객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정보교환과 기술 교류가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전부개정된 선박

안전법 주요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지역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분석·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원지부, 어업인 해기사면허취득 지원으로 강원도지사 표창 받아

강원지부(지부장 이종운)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기사면허취득을 위한 무료특강을 비롯한 면허발급에 따른 시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강원지부의 표창은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5톤 미만 낚시어선에 대해 해기사면허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강원지부에서는 면허 취득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시험대비 무료교육을 실시해 왔고, 아울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연수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현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허취득에 따른 어업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단은 강원지부의 지원을 통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638명의 어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액은 79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강원도지사 표창, 강원지부(이종운 지부장)